

第49回 (定期會)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地域開發委員會會議錄

第8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2月26日(火) 午後2時

場 所 第2小會議室

議事日程

1.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에대한同意的件

審査된案件

1.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에대한同意的件 1面

(14時03分 開議)

1.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에대한同意的件

○委員長 李鍊炯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8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에대한 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 하기 위해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도시정비국 소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시고 자구정정이나 추가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丘在永委員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사가 계시니까 간사보고 낭독해가지고

○委員長 李鍊炯 아니, 서로 읽고 서로 자구수정이랄지 서로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06分 停會)

(14時20分 續開)

○委員長 李鍊炯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제위원님.

○金甲濟委員 한가지를 더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있어서 관행대로 신문이나 게시판 공고만 하지 말고, '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해당자에 개별 고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김갑제위원님께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문이나 게시판에 관행대로 공고만 하지말고 개별고지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뜻이죠?

○金甲濟委員 예, 해당자에게 개별고지하여,

○委員長 李鍊炯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홍선위원님.

○柳興先委員 유홍선위원입니다. 안암동 5가 13-5를 14-1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鍊炯 예, 안암동 5가 13-5를 변경해 달라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복위원님.

○辛在福委員 여기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서민의 사유권 재산침해가 우려되는 바 주민 편에서 대책강구 요망, 아주 잘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선명하게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데 명시를 해가지고 풍치면 풍치,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면 하천부지, 지금 집들 다 살고있는 거

조. 살고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더 강한 말로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鍊垌 중간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서민의 사유권 재산침해가 우려되는 바 주민의 편에서 대책강구 요망했는데 어떤 식으로,

○辛在福委員 말하자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는데요.

○委員長 李鍊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辛在福委員 좀 강하게, 무슨 뜻이나면 풍치지구라든가 지금 하천부지 점용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불하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그렇게 해야되지 30년, 40년을 집을 짓고있는데 풍치지구때문에 집을 못짓는다든지 또 하천부지가 지금 사용료만 내고있지 아무 실권도 없고 집을 예를 들어서 20평 자기 사유지고 하천부지가 10평이 들어갔는데 30평의 집을 짓고있는 사람이 10평을 사고싶어도 지금 도시계획이 안돼있기 때문에 사가지고 집을 못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장기 미집행, 참 좋은 말씀인데 거기다 조금 하천부지, 뭘때 되고 안될때 안되더라도 하천부지 사용, 또 풍치지구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앞으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주민들에게 알아들기 쉽게끔 추진하겠다, 그런 것으로 좀 삽입을 해줬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羅光洙委員 그런데 지금 신재복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마는 풍치지구는 일괄적으로 정책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또는 시 정책에 의해서 해제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지금 말하시는 하천부지 이것이 담장 안에 있는 것은, 담안에 있는 땅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저도 건설관리과에 적극 추진하라고 독려도 했어요. 그래서 담장 안에 있는 것들은 빨리 용도폐지 해가지고 개인한테 사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는 있지마는 현재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있어요. 아마 점차적으로 하여지리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실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辛在福委員 예, 그렇죠. 아주 좋은 얘기

인데 이게 뜻이 없어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鍊垌 예. 정창만위원님.

○鄭昌萬委員 한말씀 삽입시키고 싶은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바 해제 및 주민 편에서 대책강구 요망, '해제 및'을 넣으면 어때요? 왜냐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서민들한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주고있다는 말이에요. 해제해주든지 어떤 주민의 편에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주민의 편에서 대책강구 요망 이렇게 하면 조금 약한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우려되는 바'에다가 '해제 및 주민 편에서 대책강구 요망'이라고 하면 좀 강하지 않겠어요?

○委員長 李鍊垌 어떻습니까? '우려되는 바 해제 및 주민 편에서 대책을 강구' 이렇게

○羅光洙委員 길을 놓는다든가 어떤 계획성이 없을 때 금만 긋는 것 이틀테면 해제를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죠.

○專門委員 崔石根 주민 편에서 그다음에 해제 그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鍊垌 우려되는 바 주민편에서 해제 및 대책 강구를 요망,

○趙基燦委員 위원장, 거기다 단순히 '해제'라고 하지 말고 '적극해제 및' 적극적으로, 적극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적극이라는 말을 써주시죠.

○委員長 李鍊垌 '적극해제 및 대책강구를 요망'을 거기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말씀하고 싶으신, 예, 나광수위원님.

○羅光洙委員 맨 뒷장 보면 돈암1동 창호약국 앞 북부도시고속화도로 교각 및 쓰레기 매설민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조치요망, 했는데.

○委員長 李鍊垌 그것은 여기 지금 안들어가 있는데,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오늘은 도시정비국만 하고,

○羅光洙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내일 하더라도 지금 아침에 토목과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이 지역 다리 및 포크레인 장비를 갖다놓고 확인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석하

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委員長 李鍊垌 끝난 뒤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羅光洙委員 간담회보다는 여기서 명시를 해줘서,

○委員長 李鍊垌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이니까 이것 끝난 다음에 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羅光洙委員 그러죠.

○委員長 李鍊垌 또 질의하실 위원님?

○鄭昌萬委員 여기 맨 밑에보면 돈암 재건축 과정에 있어서 소수의 보상 미흡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바 적극적 행정지도요망, 이렇게만 돼있거든요.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재개발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돼있고 재건축은 건설부 촉진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건축도, 왜냐하면 소수의 미보상으로 인한, 소수가 반대하므로써 이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뜻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도시계획법을 건설부 촉진법으로써 시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망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개발과 같이 해서 어느 미비된 찬성자에 한해서 직권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데 건설부 촉진법에 의하다보면 개인 재산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100%를 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평당 300만원짜리가 2천만원씩 가고 버팅기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부수적인 면이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건설부 촉진법을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행정적으로도 적극적인 지도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趙基燦委員 건설부 촉진법이 뭐니까? 주택건설 촉진법을 말하는 거죠?

○鄭昌萬委員 그렇죠.

○趙基燦委員 주택건설 촉진법을 완화해가지고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鄭昌萬委員 시정하여 도시계획법에 같이 재개발법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鍊垌 현재 소수 미보상 협의라는 것은 소수 미보상 협의로 착공조차 못

하고있다 이런 것은 거기에 내포된 뜻 아닙니까, 대충 보면?

○鄭昌萬委員 소수 미보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착공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법을 뜯어고쳐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건설 촉진법을 도시계획법으로 고쳐야만이 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과 같이 동행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은 100% 찬성을 해야된다고요. 그러면 100%찬성이니까 한 두사람만 반대를 해도 집을 못 짓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시정하도록 시에다 촉구한다든지 이게 법 자체가 올라 갔었는데 누가 또 반대를 해가지고 개인 재산권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되돌려버렸어요, 이게. 이런 문제를 좀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羅光洙委員 그렇지만 이게 성북구청에서 법을 바꿔서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鄭昌萬委員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건의,

○羅光洙委員 그러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

○金甲濟委員 그러니까 주축법을 재개발법으로 동시에 할려고 박석안 국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趙基燦委員 사실상 그런 문제는 상위법이고 법 원칙 때문에 우리가 건의요망이라고 하지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단 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이렇게 지역 사업이 이러니까 상부에 건의 요망할 정도로 해야지 요망사항해야지,

○羅光洙委員 총체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거죠.

○委員長 李鍊垌 좀 계세요. 한 분씩 말씀하세요. 네, 김순권위원님.

○金順權委員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20세대 이상부터 주택자체들을 100% 동의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성북 같은 경우는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 단위의 재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당 법 자체들이 100%동의를 있어야만이 착공이 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소수가 악용을 하고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그 사람은 재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집을 현시, 보다 2배 내지 3배를 비싸게 팔고 나간다고요. 그리고 또 B란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으로 간다고요. 거기서도 또 막판까지 버티다가 막판에 현 시가보다 3배 내지 4배정도 비싸게 팔고 또 나간다고요. 이런 악덕적인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사회 현실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핵이 사회재산 분포 이차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100%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지 관계되는 시행령 그리고 건설부규칙이라든지 서울시 지침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규정대로 운영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점은 이런 경우는 구청장 나름대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든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중에서 990세대가 나가고 10세대가 안 나갔는데도 착공계획을 안 내주거든요. 그런데 현실상 이것은 법상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촉진법의 기본 취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 놓고 봤을 때 한 1% 내외였을 경우는 구청장 나름대로 구청장 결재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착공계획을 내 주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요. 그랬을 때 구청장 같은 경우는 현행 법에 사실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의회에서 압력으로 동의를 한다든지 촉구를 해 주면서 이런 문제들을 현실적 법 테두리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청장하고 의회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대로 해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재건축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수 보상 미협의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망된다 그러면 그안에 내포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는데,

○柳興先委員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지금 전번에 우리 지역개발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했을 때 돈암1동을 우리 예를 보면 지금 현재 거기 시가가 350이나 400 평당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1,500을 줘야 나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수가 다 철거를 했는데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지금 그런 뜻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다수가 비웠고 몇사람이 이런 자기 어느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우리 성북구 자체에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서 그런 것은 현시가에 좀 더해서 주면서 강제적으로라도 밀어 버리고 착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몇사람 때문에 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委員長 李鍊炯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수까지 우리가 쓸 수는 없고 소수의 보상 미협의로 그러니까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뜻은 그게 내포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수가 돈을 더 달라랄지 뭐 이렇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착공조차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지도를 해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김영기위원님.

○金鈴基委員 가까운 예로 저희 동네에 보라건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부락주민들의 자유 합의로서 다 동의 하에 보라건축이 지구선정을 받아서 다 이뤄지는 단계에 그러니까 해를 끝다 보니까 찬성 쪽에 있던 사람이 반대 쪽으로 지금 한 40여명이 돌아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것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7집이 동의를 안했는데 극동건설에서 3집을 샀다 이겁니다. 아주 문제가 있는 집의 3동을 샀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 쪽으로 돌

아가서 자기도 고가를 받고 물려서겠다라는 쪽에서 반대 쪽으로 한 41명인가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어떤 법적으로 이미 찬성 쪽에 있었으므로 그 분들이 조합을 형성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 쪽으로 돌아가면 이것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은 아주 묵시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강력한 테두리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鍊炯 네, 조기찬위원님 말씀하세요.

○趙基燦委員 사실상 지금 현재 논의한 사항은 돈암동의 재건축에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문구까지 고도 그간의 사정을 정히 합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법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구청장 재량으로서 이게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조금 분명히 명문화되게 하고 이것으로 가칠 것 없이 이 정도로 확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지적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문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행정적으로 지도 요망했으니까 강력한 구청의 의지를 좀 보여주라는 것이 우리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반 모든 것이 합축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더 논의하지 말고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鈴基委員 강력한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김갑제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金甲濟委員 오늘 다들 말씀을 들으셨을텐데 사실상은 그동안은 재개발이 건교부까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도·시로 특별시니까 시, 도·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조금 박석안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했으니 우리 의회에서 조금더 구체적인 것은 첨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의 근거법 주축법을, 근거법이에요. 재건축의 근거법 주축법을 재개발법에 동일

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시정요망합니다하면 아마 여기에 더 구체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왜 그러느냐하면 그 전에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이관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나오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상당한 쪽이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위는 어떻게 됩니까? 상부기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나? 시장의 권한이 상당히 부여가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적극 추진을 한다면 박석안 국장님이 추진하던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鄭昌萬委員 우리 김갑제위원님한테 찬성을 보냅니다.

○委員長 李鍊炯 그러니까 이것을 돈암 재건축 과정에 있어서 소수의 보상 미흡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법의 맹점이 있는바, 다수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법을 상부에 건의 및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구 요망 거기 결들여서 이렇게 문구를 잡으면 어떨까요?

○金甲濟委員 재개발법에 동일한이라고,

○趙基燦委員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엄연히 법 자체가 다른 데 어떻게 동일한 것으로 합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하고 주택건설촉진법하고 원칙적으로 통합이되어야 돼요. 지금 통합이 안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박국장도 그런 쪽으로 건의를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묶어서 구청에다가 그냥 뭐뭐 박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 지도 요망했으니까 구청에서 느끼는 의지대로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뭘 여기서 어떻게 주택건설촉진법을 놓고 재개발을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鄭昌萬委員 아니 우리 구 의원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넣어달라는데 뭘 이거 적극적인 행정조치만 바란다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아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데 그것이 잘못 됐습니까?

○趙基燦委員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鄭昌萬委員 여기서 강하게 집어 넣어줘야 행정력에서 의지를 갖고 하지,

○委員長 李鍊垌 아니 여기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요 망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 들어갔습니다.

○鄭昌萬委員 부분이 지금 두가지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법이, 도시계획법하고,

○委員長 李鍊垌 그러면 제가 방금 남독을 했지만,

○趙基燦委員 재개발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하고

○委員長 李鍊垌 조금 계세요.

○趙基燦委員 주택재개발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하고 똑같은 법인데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법을 읽어 보시면 안단 말이에요.

○柳興先委員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최석근 전문위원께서 지금 현재,

○委員長 李鍊垌 조금 계세요. 전부 뭐 다 비슷한데 강력히 좀 뜻을 전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암 재건축 과정에 있어서 소수의 보상 미협의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법의 맹점이 있는 바, 다수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축물축진법을 상부에 건의 및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 요망 이렇게 해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趙基燦委員 뭐라고요?

○委員長 李鍊垌 주택건축물축진법.

○趙基燦委員 주택건설촉진법

(웃음소리)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

(「그렇게 넣으면 되겠어요」하는 이 있음)

○趙基燦委員 주택건설촉진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委員長 李鍊垌 주택건설촉진법 상부에 건의한다고요.

○趙基燦委員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자는 거예요? 유보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委員長 李鍊垌 약간 바꾸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앞에 얘기 안했습니까? 소수 보상 미협의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이 있다는 얘기죠.

○趙基燦委員 문구가 이게 뭐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보상 미협의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바라고 단서 달았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지도요 망 이러면 다 들어갔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법례 사리도 모르면서 주택건설법을 강화하고 뭐 저거를 강화하고 이렇게 막연한 얘기하자는 거예요?

○金甲濟委員 아니 그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박석안 국장님한테 들은 얘기대로 하는 겁니다.

○鄭昌萬委員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委員長 李鍊垌 정창만위원장님 한 분씩 얘기하세요. 왜,

○鄭昌萬委員 아니 아니까 얘기하는데 모르고 얘기한다고,

○委員長 李鍊垌 김갑제위원장님 먼저 얘기하십시오.

○金甲濟委員 박석안 국장님의 말씀을 난 근거로 해서 나는 그러한 것이지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단서를 넣을 적에 말하자면 재건축의 근거법 주축법을 재개발법에 동일한 사업시행이라고 했어요.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시정 요망하면 지금 사업시행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면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법에 동일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시정요망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구체성을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포괄적인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성을 띠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박석안 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의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羅光洙委員 위원장님 소수 극소수의 인원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피해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으니까 장기간, 그래서 법을 좀 이 다수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구청장이 어느정도 권한을 가지고 이 정도의 철거가 되고 몇사람이 철거를 안해줬을 때에는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을

조성해달라, 즉 말하자면 법을 좀 개정해달라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자는 것이어야지 무슨 건축촉진법이다 무슨 법이다 우리가 따져봤자 우리하고 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법은 위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는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피해자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지역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분들을 좀 보호하자는 뜻에서 법을 개정해달라 하는 하나의 촉구 건의 이런 식으로 하면 됐지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해봤자 뭐합니까?

○金甲濟委員 내가 얘기했던 것이 그동안에 재개발법이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던 것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청장이나 구에서 적극성을 띠면 옛날보다는 건교부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하고 또 제가 얘기하는대로 훨씬 빠르죠, 쉽고 빠르고 이미 그렇게 됐으니 한번 우리 의회에서 박석안 국장님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으니 박석안 국장님의 힘을 좀 보태주고 도와주는 뜻에서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鍊炯 그러니까 거기에 다 내포된 겁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지도 요망 했으면 거기에 행정적인 게 내포된 것이지 재건축 촉진법을 바꿔달라 뭐해라 이런 얘기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찬위원님 아까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표결을 할까요? 두 안이 나왔는데 조기찬위원님은 원안대로 그렇게 돈암 재건축 과정에서 소수의 보상 미협의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뜻으로 아까 원안대로 해달라는 것이고, 김갑제위원님은 주택건설 촉진법을 말하자면 고쳐서라도 해달라 하는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金甲濟委員 재개발법의 동일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자.

○委員長 李鍊炯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다 내포가 돼있는 것 아닙니까?

○羅光洙委員 위원장님, 김갑제위원님 말씀을 여기다 더 삽입을 시키려면 요망에 팔호를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죠.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 李鍊炯 조기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趙基燦委員 돈암 재건축 과정 이 문제에다가 다른 사족을 넣어서 문맥을 고친다고 보면 바로 그 위에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넣어줘야죠. 불량주택 재개발법하고 주택건설 촉진법하고 이런 건 전부 고쳐야 됩니다. 동시에 도시계획법도 고쳐야 돼요.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 다 내포돼 있어요. 하나하나 전부다 전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그래서 이 재개발 문제도 아까 함축적으로 문제가 포함이 돼있으니까 이것으로 하고자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그런 제반문제가 다 포함이 돼있으니까 이정도 문구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金甲濟委員 그런데요. 아까 그러면

○委員長 李鍊炯 김갑제위원님, 좀 계세요. 얘기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요.

○鄭昌萬委員 10분간 정회합시다.

○委員長 李鍊炯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9分 停會)

(15時01分 續開)

○委員長 李鍊炯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光洙委員 이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委員長 李鍊炯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수정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8차 지역개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3分 散會)

○出席委員 15人

李鍊炯	李承魯	金東殷
羅光洙	鄭昌萬	金甲濟

文	京	周	趙	基	燦	金	順	權
柳	興	先	丘	在	永	金	鈴	基
許	東	翼	辛	在	福			

○参席専門委員

專 門 委 員

崔石根